

## 3551억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동방파제 연내 발주

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3500억 원 규모의 방파호안 건설공사가 연내 발주된다.

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해항 3단계 후속 물량인 '방파호안 및 동방파제 건설공사'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된다.

해당 공사는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1·2공구로 나눠 진행된다. 1공구는 1907억원, 2공구는 1644억원으로 총 사업비만 3551억원 규모다.

대규모 항만공사 발주가 예고되면서 동

해항 북방파제 공사에 고배를 마셨던 대형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수주전을 준비 중이다.

그러나 공사 규모가 크고 항만공사에 대한 전문 기술력 부족 등으로 도내 업체들이 주 시행사가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.

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은 2020년까지 1조6224억원을 들여 동해항 외곽과 접안시설, 임항 교통시설,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 안은복 rio@kado.net